

## 추상조각의 언어

March, 2016



### 추상조각의 언어

한국 추상조각의 대부 신문섭의 예술 인생을 총망라하는 회고전과 세계적 공공미술 작가로 유명한 장 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이 동시에 열린다. 추상조각이라는 낯선 조형물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무엇일까?

작가 신문섭은 한국 현대조각의 개척자다. 1971년 파리 청년 비엔날레에 출품을 시작했고,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백남준과 함께 초청받으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1970년대의 미술계는 개념적이고 전위적인 실험예술과 행위예술이 압도하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작가 신문섭이 한국아방가르드협회의 원년 멤버라는 사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다. <Represent : 신문섭의 조각 회화 사진-향해일지> 전시는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작가의 40여 년간 궤적을 조명한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생명의 원형과의 만남을 제시하고, 이것을 다시 되새김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속삭임과 두근거림을 담아내는 일'이라 설명한다. 작품은 한국의 대지를 품는다. '목신'에서는 목기구가 갖는 선과 결을 따라가고, '현전'과 '토상'에서는 한국적인 정신을 탐구한다. 재료의 물성과 작품이 놓여 있는 각도, 온도, 빛의 변화가 어우러져 사유를 끌어낸다. 익숙한 사물을 색다르게 느끼는 낯선 경험이 신문섭의 추상조각에 다가가는 길이다. 이탈리아의 미술평론가 루디 치아피니는 그의 작품에 대해 '동양의 선(禪) 사상을 드러낸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기존 작품뿐 아니라 광섬유로 만든 초롱 안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신작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소개한다. 원로작가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 전시는 4월 24일까지,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에서 진행된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되새김의 방법론, 어쩔지 구도의 길처럼 느껴지는 행위는 신문섭과 작가 장 미셸 오토니엘을 이어준다. 장 미셸 오토니엘의 주된 재료는 구슬이다. 화려하고, 거대하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슬은 세포가 분열하는 듯한 생명력과 실존 자체의 미를 보여준다. 작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제를 꿈꾸던 연인을 잃은 비극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예술가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성소수자들의 참여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 상처와 아픔을 드러낸 '상처-목걸이(Le Collier-Cicatrice)', 정신분석학 이론으로 인간의 욕망과 잠재의식을 다룬 '라캉의 매듭(Lacan's Knot)' 연작 등이 있다. 그는 작품으로 연인을 애도하는 동시에 존재의 상실과 부재를 고민하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는다. 반짝이는 빛의 거대한 유리 구슬은 아름답고 화려한 반면 깊고 처연하게 관람자의 감정을 파고든다. 전시 <검은 연꽃(Black Lotus)>은 꽃을 주제 삼은 신작 10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연꽃의 순수함과 검은색이 지닌 어둠을 결합해 시적인 느낌을 강조한 것처럼, 시를 읽는 마음으로 작품에 다가가면 된다. 전시는 3월 27일까지, 국제갤러리를 통해 공개한다.